

김통정 설화 연구*

이남옥**

<차례>

- I. 서론
- II. 역사서술에서의 김통정
 - 1. 歷史上의 김통정
 - 2. 삼별초와 濟州民
- III. 구비전승물에서의 김통정
 - 1. 당신화의 전승양상
 - 2. 전설의 전승양상
- IV. 김통정 설화에 나타난 민중의식
 - 1. 당신화에서의 갈등과 해결
 - 2. 전설에서의 좌절과 극복
- V. 결론

I. 서론

제주역사는 제주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본토와는 다른 지리적 조건으로 생활양식 자체도 달랐다. 원래 독립 부족국가였던 제주도는 고려 태조 이후 본토에 귀속되면서 이때부터 통상 제주도는 독자적 권한이 사

* 이 글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2006. 8)을 탐라문화연구소 투고규정에 맞게 새롭게 정리한 것임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 석사과정수료

라졌다고 보고 있다. 이로서 제주는 고려 중앙정부의 체제하에 들어가게 되고, 제주의 역사는 항상 변방의 소외된 지역으로 점철되었다. 이때 일어난 삼별초 항쟁은 제주 역사상 아주 키나란 사건이었다.

삼별초는 1270년(원종11) 몽고에의 복속을 반대하여 봉기한 반몽 세력으로서 서남해안의 도서 진도에 거점을 정하고 30여년 항몽전쟁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이들은 고려의 정통정부를 자처하고, 承化候 溫을 옹립하여 왕으로 삼고 여러 차례 몽고군을 격파하면서 본토의 여러 지역에서는 이들에 호응하는 세력이 봉기하는 등 점차 기반이 다져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진도에 항전의 거점을 구축한지 1년 만에 몽고 및 개경군의 공세에 함락당하고, 진도를 탈출한 삼별초 반몽세력의 일부가 제주에 새로운 거점을 정하고 해상세력으로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제주는 몽고가 중점 추진 중인 항후의 정복전쟁에 있어서 고려·남송·일본 3국의 연결점이라는 데서 지리적으로 주목받는 곳이기도 하였다. 이때에 봉기한 삼별초 항쟁은 일본정벌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서 몽고는 우선 삼별초의 평정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삼별초가 제주 입거 후 관군과의 싸움이 치열하였고, 제주민과의 갈등이 있었지만,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주는 고려왕의 중앙집권 통치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삼별초가 여·몽 연합군에 의해 토벌된 이후, 13세기 전반부터 14세기 후반까지 근 백년간은 元의 목마장으로서 외세의 지배를 받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매마른 땅에 3돗가 겹친 제주도의 지리적 환경과 관리들의 착취와 외세의 침탈로 인한 역사적 배경은 제주도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또한 제주도 설화를 이해하는데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다. 즉, 제주라는 한 집단의 문화 양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아울러 구비문학에 스며있는 민중의 의식을 함께 살

펴보아야 제주문화 전반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고려사에서 김통정에 대한 기록은 삼별초군이 진도에 퇴거했다가 여몽연합군에 패하여 제주도로 들어올 때 비로소 나타난다. 제주도를 마지막 항쟁지로 삼아 그 군사적인 세력을 펼쳤음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인물을 둘러싸고 지배층의 관점에서 쓴 史料와 민중들의 의식을 반영한 구비설화와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구비설화와 官撰의 사서는 각각 민중과 지배자의 '자신들의 관점'에서 말해진 역사해석이다. 관찬사서는 역사적 해석이 지배계층의 입장에서 쓰여 졌기 때문에 민중을 바탕으로 쓰여진 설화와는 그 인식자체가 다르다.

이 글에서 살펴볼 김통정 이야기도 당시 침략세력이었던 중국(몽고)과 국내의 역사서에는 나라를 반역한 역장(逆將)으로 인식되어 列傳의 한 부분을 차지하였고, 탐라 민중의 구비물에는 김통정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인물로 각각 그려졌다. 즉 역사서에는 중앙·지배층의 입장에서 삼별초 진압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구비물에서는 역사사실을 허구화시키면서 당신본풀이와 전설의 형태로 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역사의 표면에 등장하는 지배층의 문화보다 역사의 이면에 숨어 있는 민중의 의식을 살펴본다는 것은 설화를 연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와 같이 어떤 역사적 인물에 대하여 구비서사물을 살피는 작업은 설화의 전승·전파, 서사구조·모티프상의 변화 등 문화적 관심 분야를 폭넓게 하며, 역사서가 담당하지 못하는 민중의 역사인식을 포괄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¹⁾

이 연구는 제주사람들이 삼별초 항쟁을 겪으면서 보았던 역사적인 상황에 대하여 민중들의 의식을 구비물의 구조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1) 임재해(1982), "전설과 역사", 『한국문화 연구입문』, 지식산업사, p.125.

향유자들의 인식양태 및 현실에 대응하는 삶의 양식을 살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위해 구비설화 가운데 김통정 이야기가 나타나는 당분꽃이와 진실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먼저 살펴본 다음, 민중의 의식을 살피는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역사서술에서의 김통정

1. 歷史上의 김통정

우리가 어떤 인물을 상정하고 전기를 읽었을 때, 누구를 중심으로 서술하느냐에 따라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이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만으로 한 인물에 대한 年代記를 살펴보는 것은 지배층의 시각만 주목하는 것이므로 문학적 상상력에 의한 이해·분석을 통해 김통정의 인물상을 재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관찬사서의 삼별초나 김통정에 대한 인식은 정부에 반역한 역장(逆將)으로 이해되어 왔고, 한때는 몽고군의 진압에 앞장서 공적을 세웠던 김방경에 대한 기사는 《고려사》 열전 충신조에 서술되면서 삼별초를 물리친 위대한 공적을 예사롭지 않은 출생과 함께 청렴결백한 관리상을 묘사하면서 영웅화 시키고 있다. 김방경의 명성은 고려뿐 아니라 원(몽고)까지 널리 알려지고, 元의 세조의 후대를 받았다. 역사에서 그는 난국에 처한 고려를 구하여 평정시켜 큰 공을 세운 장군으로 기술되고 있다.

이에 비해 배중손은 反逆 인물로 분류되어 있는데, ‘원종 대에 여러 관직을 거쳐 장군에 이르렀다’²⁾며 배중손을 전면에 내세웠으나, 개경 환

2) 《高麗史》列傳 43(배중손)조, ‘裴仲孫元宗朝積官至將軍’

도에 불복한 배중손이 노영희 등과 함께 항몽 세력을 규합해 承化候 溫을 왕으로 삼고 항몽을 수행해 나가는 삼별초 전체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삼국유사』 卷4 에서는 삼별초가 봉기하였을 그 당시의 江都의 분위기는 개경환도 할 때의 혼란이 강화천도 당시보다 더했다고 하고 있다.³⁾ 그러나 배중손, 노영희 등이 새로운 왕을 擁立하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킨 의미는 몽고에 굴복하고 백성을 배반한 王을 국왕으로 인정치 아니함과 동시에 국민 대다수의 여망대로 끝까지 몽고와 항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필요했던 것⁴⁾이라고 하고 있다.

《고려사》 후반부애야 등장하는 김통정은 적장으로서 패잔병을 이끌고 탐라로 들어가 갖은 패악을 저지르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린 인물로서 끝내 죽음에 이르고야 말았다는 내용이 서사화 되었다.

김통정에 대한 기록은 독자적인 역사기술은 없으며, 위의 《고려사》 <김방경>조나, <배중손>조에서 삼별초의 진압과정에서 김통정의 이름이 나오고, 《고려사절요》에서는, “윤월에 탐라에 주둔하였던 장군 송보연이 적 괴수 김통정의 시체를 얻어 보고하였다.”⁵⁾고 하면서 김통정의 자살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 중국의 사서인 《元史》나 《新元史》에서는 “진도의 도적을 토벌하자 김통정이 남은 무리를 거느리고 탐라로 달아났다”⁶⁾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김통정이 직접적으로 역사 서술에 언급되는 것은, 1271년 김방경과 홍다구가 이끄는 여몽연합군에

3) 『삼국유사』, 卷4, ‘庚戌出都之亂 顛沛之甚 過於壬辰’.

4) 나종우(1986), 『고려부인 정권의 몰락과 삼별초의 천도항몽』, 원광사학, 제4집, pp.90-91.

5) 《고려사절요》 제19권, <원종 순효대왕>

6) 《元史》 「세조본기(世祖本紀)」, 「열전(列傳)」, 홍복원(洪福源)조, 高麗조, 耽羅조. 《新元史》 「열전(列傳)」, 홍복원(洪福源)조, 高麗조.

쫓겨 탐라로 들어갔고, 2년 넘어 항전하다 끝내는 패배한 인물로 그려진다.

이와 같이 역사기록들을 종합하면 김통정은 배중손과 더불어 고려 정부와 몽고에 저항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다. 배중손 등 상급자들은 민족 자주의 정부가 필요하다고 보고 왕족의 한 사람인 승화후 은을 왕으로 추대하였으며, 김통정은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항몽투쟁을 벌여나갔다. 그러나 관찬사서에 기록된 김통정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항쟁의 본거지인 제주에서의 민중들의 의식을 구비물을 통하여 같이 살펴볼 때만이 진정한 역사의식을 함께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제주민들이 삼별초의 항쟁에서 어떤 입장에 섰었는지, 그리고 삼별초가 제주를 거점으로 항전을 벌이는 동안 제주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살피는 작업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김통정은 제주도에서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신앙의 대상인 堂神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민중영웅의 모습으로 전설의 주인공이 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통정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로서의 이야기일 수 있고, 당곳에서 신격을 섬기는 당신화로서의 이야기일 수 있고, 민중의 의식을 담은 전설적 인물로 변용되어 비범한 행위를 하는 인물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⁷⁾

2. 삼별초와 濟州民

진도 정부 하에 삼별초군이 제주도에 처음 입거한 것은 원종 11년(1270) 11월의 일이었다. 당시 제주도에는 개경정부에서 파견된 안찰사

7) 권태효(1999), “제주도 김통정이야기의 당신화 및 전설로의 변용양상”, 『구비문학연구』, 제8집, 구비문학회, p.151.

權단, 영암부사 金須를 비롯하여 장군 高汝霖 등이 방어에 임하고 있었는데, 李文京이 지휘하는 삼별초군에 의하여 전멸됨으로써 제주도는 진도의 배후 거점이 되었다.⁸⁾

김통정은 1271년 5월에 진도에서 삼별초가 내세운 새 정부의 군왕인 승화후 溫과 그의 아들 桓이 홍다구의 손에 죽고, 그때까지 항몽을 이끌어 온 배중손마저 전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굴하지 않고 나머지 군사들을 이끌고 탐라로 들어왔다. 김통정은 고성리 항바두리에 내외(內外) 두성(城)을 쌓아 진을 구축하고 마지막 항거를 꾀하였다. 원종(元宗)은 수차례에 걸쳐 사람을 보내어 피어내려 했으나, 가는 사람마다 살해당하거나 또는 그를 탐라에 상륙시키지 않고 추자도에 억류 시켰다가 되돌려 보내었다.⁹⁾

몽고도 일본정복을 염두에 두고 고려에 잔존세력을 없애기 위하여 김통정 친족을 보내 회유해 보았지만, 끝내 거부하였다.¹⁰⁾

이와 같이 교묘한 수단으로 김통정을 설복시켜려 했으나 결국 실패한 여몽연합군은 최후 수단으로 탐라 공격을 위한 동원령이 내려졌다. 삼별초 세력은 몽고를 업은 개경 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세적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 방어설비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제주도에서의 방어시설은 진도에서의 경우보다 훨씬 강화된 느낌을 준다. 그것은 진도에서의 실패를 거울삼은 까닭이었다. 기록상 삼별초에 의한 방어설비는 지휘부가 들어선 항파두의 내·외성, 해변 涯月浦의 성곽, 그리고 제주 해안을 둘러싼 장장 3백여 리의 長城 등을 들 수 있다.¹¹⁾ 《고려사》에서는 「內外城을 쌓고 그 險固함을 믿어 날로

8) 《高麗史節要》 18, 元宗 11年 11月.

9) 《高麗史》 元宗 15年 5月 27日.

10) 《高麗史節要》, 「元宗順孝大王」.

더욱 창궐하여 항상 나와 虜掠하니 濱海가 靡然하였다.¹²⁾라고 하면서 그 당시를 기록하고 있다.

삼별초의 제주 입기는 내근보 군사집단이 한꺼번에 외부로부터 몰려 들어왔다는 점에서 역사상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외부로부터 이 같은 무장집단의 대량 유입은 도민의 생활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임에 틀림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삼별초가 탐라에 들어온 후 지역민들은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이고 인식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그들은 제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다.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동제원·송담천 전투에서 삼별초의 이문경 부대가 정부군과 싸움을 벌일 때 제주읍성을 피하여 조천포에 진을 쳤던 점과, 중심지를 벗어난 서쪽 외곽지에 향파두성을 만든 것을 보면 삼별초는 제주 사람들을 상당히 의식했던 모양이다. 현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게 승전의 비결임을 알았던 것이다.¹³⁾ 이 싸움에서는 관군이 패하였는데 패배의 원인이 제주 도착민이 삼별초를 호응하여 도왔기 때문이라고 했다.¹⁴⁾

또한 삼별초의 입거에 대하여 제주민이 관군보다 삼별초군을 더 호응한 것은 이 지역의 반 개경적 분위기 때문이었다. 제주가 고려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게 된 것은 12세기 초 이후의 일이다. 그리고 이 같은 통제는 지방관의 파견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제주민과 적

11) 윤용혁(1994), "삼별초진도정권의성립과 그전개", 『한국사연구』, 아세아문화사, p.46.

12) 《高麗史》 卷27, 元宗 13年 6月條

13) 이영권(2006), 『새로쓰는 제주사』, pp.81-82.

14) 崔灑, 『金文正公墓地』, 『拙稿千百』. "이에(金須, 高汝霖 등이) 주야로 聖堡를 쌓고 兵器를 설치하여(삼별초군이) 올만한 길을 막아 방어하고자 하였으나, 도착민들이 요모조모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賊(삼별초)이 다른 길로 이른 것을 알아채지 못하였다. 시중(김수)이 평소 大義로써 적(삼별초)의 선봉을 거의 죽였다. 그러나 도착민들이 적(삼별초)을 뒷받침 하였으므로 중과부적이 되었고 마침내 高將軍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다."

지 않은 갈등을 빚었던 것 같다. 이와 같은 갈등으로 인해 제주민들은 삼별초를 호응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¹⁵⁾¹⁶⁾¹⁷⁾

위의 기록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동안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의 수탈로 제주 백성들은 지독하게 착취하였으며, 1168년 '양수의 난', 1186년 '번석·번수의 난' 1267년 '문행노의 난' 등은 대부분 지방관의 가렴주구에서 비롯된 민란으로 짐작된다.¹⁸⁾

이와 같이 지방관리들의 수탈과 가렴주구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제주민들은 삼별초를 구원의 영웅자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문경의 전투 때와는 달리 삼별초 본진이 제주에 입성했을 때 그 규모에 불안감이 감돌았을 것이다. 더불어 삼별초에 대한 불만도 점점 커져만 갔을 것이었고, 항파두성이나 환해장성 축조 때에는 제주 사람들도 강제로 동원되었을 것이다. 삼별초는 이미 40년 대몽항쟁의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오며 가장 강력한 반몽세력의 핵심집단으로서 성격이 역사적으로 굳어진 집단인 반면, 제주민은 아직 몽고로부터의 직

15) 東史綱目: 경신 원종 원년(1260) 2월 제주에 방호사를 두었다. 조정에서 의논하기를, "제주는 바다 밖의 큰 鎮으로 송나라의 상인과 섬의 왜인이 때 없이 왕래하니, 특별히 방호별감을 보내어 비상사태를 예방하여야 하나 별도로 방호별감을 둘 수는 없다." 하여, 드디어 부사 나득황으로 겸하도록 하였다. 앞서의 수령이 부정하게 재물을 탐하여 파면되었었는데, 득황이 와서는 더욱 백성을 착취해서 권귀에게 아부하니, 고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전에는 작은 도독을 만났더니 이제 더 큰 도독을 만났다." 하였다.

16) 《高麗史》, 형법지(刑法志), 직제(職制): 충선왕 3년(1311) 7월 다음과 같은 지령을 내렸다. "제주 백성들은 응당 특별히 돌보아 주어야 한 것인데 그 곳 수령이나 군관들이 세빛대로 약탈을 자행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 마땅히 식목녹사를 파견하여 그런 행위를 금지시키야 하겠다."

17) 《高麗史節要》 17, 高宗 46年 10月: 제주도의 옛 풍속에 15세 이상의 남자는 매년 공 1斛을 바치고 衙門의 아전 수 백명은 매년 말 한 필씩을 바쳤다. 이를 부사와 판관이 거두어 나눠 가지니, 이 때문에 이 고을을 다스리는 자는 가난한 자라도 모두 부자가 되었다.

18) 이영권(2005), 전계서, p.81.

접적 피해 경험이나 전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¹⁹⁾ 삼별초의 대몽항전과 제주민은 역사인식이 서로 달랐을 것이다. 즉, 제주민들이 반감을 갖은 것은 지배집단이 지, 몽고에 대한 민족의식은 아직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몽고와 대립하는 삼별초를 이유 없이 돕는 것은 분명 내키지 않았을 것이다. 삼별초의 직접적 권력 앞에서 일단은 삼별초의 의도대로 움직였을 것이고 협조를 하더라도 긴장 속의 마지못해 소극적 협조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²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민들은 삼별초의 입거 초기에는 호의적이었고 적극적인 가담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동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삼별초가 군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세선 등을 포탈했던 것으로 보아 군사유지를 위해 제주민을 수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별초 본진의 입도와 제주민들의 항몽에 대한 역사인식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 인식이 긍정적이지마는 않았던 것 같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과 결부되어 당신화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설에서는 민중을 구원해줄 영웅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역사에 나타난 실제 인물이 민중들이 향유했던 구비전승물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민중들의 이야기판에서는 그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형상화 시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제주 당신본풀이와 인물전설을 통하여 각각 민중들의 의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9) 윤용혁(1994), 전계서, p.74.

20) 이영권(2005), 전계서, p.82.

Ⅲ. 구비전승물에서의 김통정

1. 당신화의 전승양상

1) 당신화의 구조

설화는 사회와 역사의 場에서 전승되면서 필연적으로 변모된다. 따라서 설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승 및 변이양상의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김통정 이야기도 당신화와 전설의 전승과정에서 다양한 구조적 변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과 결부되어 나타나기도 하여 작품 내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변이와 작품 외적으로 나타내는 역사적 재현의 양상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승의 구조 및 총체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화에 나타난 신의 입도과정과 좌정경위를 분석해 보면 김통정과 제주 사람들의 역사적인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제주 사람들은 불모의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든데, 왜구의 침탈, 관리들의 수탈, 중앙관서에 특산물 진상 등 역사적 상황에 따른 갖가지 일들이 제주 사람들의 삶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억압되고 폐쇄된 사회환경 속에서 제주민들은 자신들을 구제할 유일한 신앙을 무속신앙에서 찾았다. 그들은 당신을 신앙함으로써 堂神과 하나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여기에서 현실적 황폐함을 보상받으려 했던 것이다.²¹⁾

제주 사람들의 당신들의 내력담인 본풀이는 신의 근원을 풀어내는 이

21) 현진원(1983), "의사지 사실과 문학적 인식", 『담리문화』, 제주내하교남리문화연구소, p.15.

야기로서 그 안에는 제주민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으며, 당시 사람들이 살아왔던 사회성과 역사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것은 자아와 세계와의 갈등 투쟁에서 지이(堂神)가 배배하는 진실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데서 신성보다는 인간성이 더 짙게 깔려 있다. 이러한 점들이 당신본풀이를 인물전설들과 함께 다룰 수 있는 근거가 된다.²²⁾

제주 당신본풀이의 서사구조는, 고난-극복이라는 신화적 질서에 놓이지 않고, 고난, 방황, 몰락이라는 비극적 구조를 가져 전설과 상통한다. 고난에서 극복하여 자기를 구원받고 새로운 세계에 편입 참여하는 게 아니라, 다시 추방되어 방황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제사를 받아 사는 슬픈 신으로 몰락하는 것이다.²³⁾

당신본풀이 중에는 구체적인 역사사실이 삽입되어 당신의 신성함과 영험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본풀이들은 형태적으로 볼 때 기원형에서부터 예술적인 구성을 이룬 설화형에까지 무수히 산재해 있는데²⁴⁾,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본풀이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당신화에 나타난 인물의 갈등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제주도 지역에서 김통정이야기가 당신화로 전승되는 지역은 애월, 성산, 안덕 지역 등 세 곳이다. 그 중 애월지역은 삼별초 항쟁의 배경이 되었던 김통정이야기의 발원지이고, 성산, 안덕 지역에서는 서로 다른 변이양상들이 나타난다.

이 연구를 위해 제시한 지역별 전승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진성기의

22) 현길언(1981), 「제주도의 장수설화」, 흥성사, p.24.

23) 상계서, p.65.

24) 현용준(1963), “무속신화 본풀이의 형성”, 「국어국문학」, 제26권, 국어국문학회, p.124.

『무가본풀이사전』에서 발췌하였다. 당신본풀이의 구조모형은 장주근의 분류한 기준²⁵⁾을 적용하여 참고하였다.

〈표1〉 당신본풀이 지역별 전승자료

구분	전승지	무가명	구연자
A	애월면 고내리	고내본향당본풀이①	양태옥(애월면 신업리, 남무, 당시42세)
B	애월면 고내리	고내본향당본풀이②(큰당)	양창보(애월면 애월리, 남무, 당시30세)
C	애월면 고내리	고내본향당본풀이⑤(신도본향)	고경삼(애월면 고내리, 신여, 당시64세)
D	애월면 고내리	고내본향당본풀이⑥(고내본향)	진유아(애월면 남읍리, 여무, 당시65세)
E	애월면 금덕리	금덕리당	고일부(애월면 금덕리, 여무, 당시 70세)
F	성산읍 삼달리	삼달본향당본풀이①	한기신(성산면 은평리, 남무, 당시 49세)
G	성산면 성산리	성산본향본풀이①(장수당)	신명근(표선면 표선리, 남무, 당시 68세)
H	성산면 성산리	성산본향본풀이②	조옥순(성산면 수산리, 여무, 당시49세)
I	안덕면 덕수리	광정당본풀이	고창학(안덕면 창천리, 남무, 당시69세)

가) 起源形 : 단순히 神의 본만이 풀이되고, 여기에 그 職能, 祭日, 祝願詞 등이 덧붙여 5, 6행정도 밖에 안 되는 단편으로서²⁶⁾, 아무런 서사성이 없고 ‘남신입도’과정만을 간단하게 풀이하고 있는 “H”형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여기서는 김룡정의 장수로서의 행적만이 서술되고 있다.

나) 基本形 : 기본형의 구조는 ①男神의 入道 - ③좌정경위담으로 “C, E, F, I”에 나타나 있다. 이 기본형에서의 남녀 신들은 입도하면 어디에 건 좌정해서 인간의 제물을 받아먹고 살아 가야 한다. 좌정경위에서 신화다운 기본적인 서사성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좌정방법 중 射矢卜地하는 경우는 ‘C형’에서 현리산에서 활을 쏘아 고내리로 좌정처로 정한 경

25) 장주근(1986), “제주도 당신신화의 구조와 의미”, 『제주도연구』, 제3집, 제주도연구회, p.251.

26) 상계서, p.251.

우와 'I형'에서 삼형제가 활을 쏘아 자신의 영역을 가른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 'F형'에서는 김통정이 좌정을 하려고 하나, 좌정사실을 알지 못하니 김통정이 꿈에 나타나 자신들을 제사지내 주면 벼슬을 주겠다고 알려주어 좌정한다. 이렇게 좌정한 신들의 일생은 중국 삼장수에게 패배한 영웅의 일생을 그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김통정을 잡으러 온 중국의 삼장수는 뛰어난 능력을 지녔지만, 김통정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한다. 김통정은 집집마다 거둔 재로 연막을 쳐서 도술을 부렸기 때문에 아기업개의 도움 없이는 김통정을 잡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삼장수보다 김통정의 능력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남신의 입도과정에서 김통정은 전설에서는 패배한 장수이면서도 이면에는 민중의 영웅으로 그리고 있지만, 당본풀이에서는 끝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인물로 나타난다.

좌정경위에서는 제주 각 마을에 좌정해 있는 당신 대부분이 육지부에서 쫓겨 온 신들이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대가로 마을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공생관계에 있다. 그들이 이 섬까지 쫓겨 오게 된 것은 지배이데올로기 때문이었다.²⁷⁾ 결국 제주민들은 버림받고 추방당한 인물들을 자신들이 살아온 불우한 처지와 동조하면서 당신으로 받들게 되었고, 김통정은 한때 토착민들에게 먹을 물을 제공하면서까지 민중의 영웅이 될 뻔한 자신의 안타까운 처지가 인간들에게 더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토착민들은 김통정을 결코 좋은 인식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래서 토착당신으로 하여금 제주도 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을 징수하는 등 위협을 가하는 김통정을 물리쳤다. 결국 토착당

27) 현길언(1985),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p.19.

신이 외래신을 퇴치한다는 것은 제주민들의 겪었던 역사적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成長形 : 남신이 입도하고 여신이 道內서 탄생하여 좌정하게 된 경위를 나타내고 있다. 위 자료 A, D에서 보이며, “①남신입도-③좌정경위-②여신입도”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구조는 삼성신화에도 보이고 있는 유형으로서 ①남신의 入道-②여신의 입도-③결혼-④좌정경위담의 연결구조와 같다고 할 수 있으며, 남신과 결혼하고 나서 같이 좌정하는 경우이다.

김통정은 출생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날개달린 아기의 모습이나 비늘로 온몸이 덮여 있다거나 도술을 부리는 그의 행위는 민중영웅감이다. 그러나 사회는 이 인물을 그냥 두지 않는다. 힘과 능력으로 사회와 싸워 이길 수 있으나, 당신편몰이에서는 우마와 생산물을 탐내 제주에 들어왔기 때문에 추방을 당한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당시 특산물과 말은 고려와 몽고에서 탐낼 정도로 우수한 것이어서 제주민들은 진상해야 하는 억압에 시달렸으며, 또한 관리들의 수탈과 몽고인의 횡포로 인해 많은 시련을 겪었다. 또 삼별초 주둔으로 인해 노획이 봉원되었으며, 식량부족과 군비조달 등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들이 중국 삼장수나 천자국에서 파견된 장군에 의해 정치를 당한 것이다. 김통정이야기는 그의 불운한 일생이 본풀이에 삽입되면서 인물전설과 공유하거나 변이된 양상들을 보이면서 신이 좌정하게 된 내력을 노래하고 있다.

라) 完成形 : 위의 갈등이 끝내 노출되면서 완성형의 형태를 이룬다. 이 완성형에서는 위자료 B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나는데 “㉠남신입도-㉡좌정경위-㉢여신입도-㉣결혼-㉤식성갈등과 별거”의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여신의 돈육식으로 인한 별거로 2차에 걸쳐 나타난다. “별궁자 딸아가기 돼지고기를 먹어 부정해서 황사와 살림을 갈랐고, 일년에

한번 부부가 상봉한다”고 되어 있어 언제나 육식은 부정한 상위의 것, 미식은 깨끗한 상위의 것이라는 대립관념이 보인다. 이것은 제물, 제법의 풀이라는 종교제외와 아울러서 농경문화의 우위성을 말하는 문화관의 반영이라 여겨진다²⁸⁾. 이 완성형에서는 즐거리는 간단하지만 순차적인 구조성을 보인다.

마) 설촌 경위형 : 'G형'의 장수당 본풀이에서는 종교의례를 벗어나 성산 마을의 샘물을 제공한다는 설화형 구조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제주민들이 살아왔던 사회성을 반영한 모티브로서 그 마을 주민들이 새로이 마을을 개설하여 정착해 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본풀이들은 단순히 종교의례와 관련된 것만이 아니고 신앙민들의 생활관습의 근원을 푸는 종교체계이며, 문화사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이 당신본풀이는 결코 우연한 모티브들의 집성이 아니고, 제주도 촌락 신앙의 종교체계이며 신학이 되는 것이며, 또 제주도 지리성과 역사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²⁹⁾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여 총괄적으로 도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2〉 당신본풀이 구조형태

구분	무가명	구조형태		
		구조형	인식	구성요소
A	고내본향당본풀이①	성장형	제압/정치	㉠남신입도-㉡좌정경위-㉢여신입도
B	고내본향당본풀이②(큰당)	완성형	정치/갈등	㉠남신입도-㉡좌정경위-㉢여신입도 -㉣결혼-㉤식성갈등과 별거
C	고내본향당본풀이⑤(신도본향)	기본형	제압	㉠남신입도-㉡좌정경위

28) 현용준(1985),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p.208.

29) 장주근(1994), “제주도 서사무가(본풀이)전승의 현장연구”, 「제주도연구」, 제11집. 제주도연구회, pp.25-26.

D	고내본향당본풀이⑥(고내내본향)	성장형	제압/징치	㉠남신입도-㉡좌정경위-㉢여신입도
E	금덕리당	기본형	신격위상	㉠남신입도-㉡좌정경위
F	삼달본향당본풀이①	기본형	신격위상	㉠남신입도-㉡좌정경위
G	성산본향본풀이①(장수당)	설화형	설촌내력	설촌 경위담
H	성산본향본풀이②	기원형	장수행적	㉠남신입도
I	광정당본풀이	기본형	제압	㉠남신입도-㉡좌정경위

2) 지역별 변이양상

지금까지 당신화 구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지역에서 당신본풀이가 전승되는 지역은 애월, 성산, 안덕지역에서 각각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본풀이가 역사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허구화된 것인지 당신화에 나타난 인간과의 갈등은 무엇인지 각 지역별로 변이된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애월지역은 김통정에 대한 당신화와 전설이 가장 풍부하게 전승되는 지역이고, 삼별초가 여몽연합군과 최후까지 결투하여 항쟁을 벌였던 곳임에도 '남신의 입도 및 좌정경위담'에서 보면 김통정을 낭신으로 모시지 않고 오히려 중국 삼장수에게 징치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김통정이 제주도에 들어오게 된 것도 대몽항쟁이나 제주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제주의 우마와 생산물에 욕심을 낸 까닭이라 하고 있어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³⁰⁾

제주민들은 고려중엽부터 진상이라는 명목아래 특산물을 헌상하면서 고려 관리들의 횡포와 착취에 시달렸고,³¹⁾ 삼별초 진압 후 충렬왕 때에

30) 권태효(1999), 전계서, p.162.

31) 「耽羅屋主遺事」(1979), 고려서적주식회사, p.110에서 고려중엽부터 탐라에 대한 지방정력이 강화되면서 지방관을 파견하여 조공토록 강요하였으니 진상이라는 명목 밑에 특산물, 토산물 등을 바치게 하였으며, 특별세를 징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貢賦제도가 빈번해짐에 따라 고려 관리들의 횡포와 착취가 날로 심해졌다. 이 무렵 탐

는 제주에 말을 방목하여 궁중의 승용에 충당하게 하는 등 제주민의 겪는 고통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 고려와 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특산물과 우마를 탐내 김통정이 제주에 입도하였다고 하였으니, 관군이나 중국 삼장수가 이를 가만 놔둘 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김통정이 중국 삼장수에게 징치되는 양상은 당신화에서 뿐 아니라 전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화소인데 광정당의 자료를 제외한다면 모두 김통정이 중국의 삼장수나 김방경의 부하장수에게 징치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삼별초군은 여·몽 연합군에 밀려 고려 원종 11년(1270) 11월 제주에 입도하는 과정에서 관군과 싸움이 벌어졌고, 제주민들과 갈등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이 전투에서 방어군과 삼별초간의 제주도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관군이 패하게 된 원인은 토착민이 도왔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주민들이 삼별초를 도왔다는 것은 단순히 대몽 항쟁을 전개하고 있는 삼별초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관리들의 수탈로 인해 고통을 겪은 제주민들이 삼별초를 구원군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제주민에게 있어서는 삼별초 주둔으로 축성에 따른 노역이 동원되었을 것이고, 군량미와 군비조달로 인한 식량부족, 그리고 '항몽'에 대한 역사적 인식 등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 나중에는 제주민과 삼별초는 전적으로 그 뜻을 같이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애월 금덕리당에서는 신비한 말의 출현으로 다시 영웅 장수로서 되살아남을 볼 수 있다. 그는 꿈에 산신백관이 현몽하여 신비한 말을 잡아타는데, 여기에 나타난 말은 아기장수와 같이 출현하는 용마와 같은 존재로 김통정의 영웅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아기장수의 용마는 아기장

라가 현상하는 특산물로는 귤과(橘, 果), 우황(牛黃), 우각(牛角), 우피(牛皮), 나자(螺子), 비자(櫃子), 해조(海藻), 구갑(龜甲) 등이었다.

수가 죽음으로써 그 모습을 드러내어 울음소리와 함께 죽어 지명전설을 유래하지만, 김통정이 타는 말은 눈 깜작할 사이에 제주 삼읍을 돌아올 정도로 그 비범성이 드러나 화살의 빠르기와 비교되기도 한다.

한편, 왜놈들이 쳐들어와 마을의 재물을 약탈하고 여자들을 겁탈하는 것을 짐장수가 물리쳤다고 하는 것은 여몽연합군이 삼별초 진압 후 몽고가 약 1세기동안 제주를 지배하면서 몽고의 억압과 횡포의 수모에 시달리게 되고, 목축사역의 구실 하에 초적죄인을 데려와 풀어 놓는 등 몽고군의 각종 만행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³²⁾ 또한 '이 형상목사가 신당집을 불태워버렸다'는 내용이 이 본풀이에 일부 삽입되어 있는데, 이는 이목사가 무당들의 행패와 그 사회적 병폐가 심해서 풍속 개량과 백성의 교화란 이유를 들어서 신당을 철폐했던 사건이 전설화된 경우이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지배력을 통해 신당 철폐에 성공하였으나, 민중의 가슴속에 굳혀진 당신 숭배 사상은 없애질 못했다. 그 당시의 가장 큰 사건이었던 신당철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 본풀이에 삽입되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성산면 지역의 당신화는 애월지역과 달리 김통정과 의 대결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이 지역에서는 김통정이 샘물을 제공하는 뛰어난 장수이기 때문에 당신으로 섬겨지고 있으며 지역민들에게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된 배경에는 제주도가 샘(泉)이 귀하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인 물을 제공하는 김통정을 신으로 받들만하다는 것이다. 삼달리본향당은 역적으로 몰린 황서국의 셋째 아들이 소를 잡아 부친의 병을 고쳐 닦게 하였으나, 그는 역적을 살린 죄로 제주로 추방당한다. 제주로 추방되었다는 것은 제주도가 당시에는 사회가 수용할 수 없

32) 변승규(1992), 「제주도略史」, 제주문화, p.38.

어 거부하는 인물들을 받아들여 새로운 질서가 생성될 수 있는 땅임을 시사하는 것이다.³³⁾ 이러한 사실은 제주에 입도한 사람들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실명한 것이면서, 제주라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을 상징적으로 대변해 주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당시 도덕률에 대한 민중들의 반항의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³⁴⁾ 또한 사회와 역사에 대한 제주백성의 의식체제와 폐쇄된 사회현실에서 살아온 자신들을 이러한 신들의 불행한 신의 이야기를 통하여 현재의 자신을 보는 것이다. 또 성산본향에서는 김통정과과의 대결이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단지 김장군이 여몽연합군과 싸워 승리해서 결국은 좌절하게 된 내력을 말하거나, 김통정의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장수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성산의 당신화에서는 김통정이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장수로 제주민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긍정적 존재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안덕면 덕수리 광정당본풀이에서는 세 토착당신과 김통정과과의 갈등이 나타난다. 즉, 토착당신들이 김통정을 정치했다는 점에서 김통정에 대한 제주민의 시각이 긍정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³⁵⁾

이러한 김통정과과의 갈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고려에 대한 반역 장수로서의 인식이 민중들에게 미쳤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삼별초군이 제주에 들어와 성을 구축하고 군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본 도민들과의 갈등 대립이 있었다는 것이다.³⁶⁾

광정당신은 한라산신의 아우로서 두 신은 제주의 중심에 자리 잡은

33) 현길연(1981), 전계서, p.52.

34) 현용준(1981), "본풀이의 형성과 내용",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화회, pp.181-183.

35) 제보자: 고창학, 안덕면 창천리 남무69세.

36) 현길연(1981), 전계서, p.144.

한라산을 수호하는 신이다. 그런 수호자가 김통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은 외부 세력인 김통정에 대한 인식, 즉 토착민과의 갈등이 격렬하게 상징적으로 표현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내용은 애월 고내리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국에서 파견된 삼장수 대신 토착당신 삼형제가 설정되었다는 점은 곧 외래신격 간의 대결이었던 것이 外來神과 土着神의 대결로 변모되어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³⁷⁾

결국 외래신과 토착신의 대결에서 외래신은 지배계층의 관점에서, 토착신을 민중의 의식을 대변하는 신으로 대결을 벌이며, 결국은 외래신은 배척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광정당본풀이에서 보여준다. 즉 김통정을 외래신격으로 설정하여 퇴치한다는 것은 다른 외래신이 제주도에 피해를 입혔다는 의식이 강하기에 토착당신들을 앞세워 징치했을 것이다.³⁸⁾ 즉, 여몽연합군이냐, 삼별초군이냐 제주민에게는 결국 외세의 세력일 뿐 민중 편이 아닌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드러내는 당신화의 특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지역별 당신본풀이의 비교

구분	애월(고내본향, 금덕리당)	성산(삼달본향, 장수당)	안덕(광정당)
堂神	중국에서 온 삼장수	김통정	광정당신(과양당신·선왕당신)
對決樣相	중국의 삼장수 對 김통정 외래신격간의 대결	없음	세 토착당신 對 김통정 외래신과 토착신의 대결
승리자	중국의 삼장수	없음	토착당신
갈등양상	축성과 진지구축에 노력중인, 식량부족, 입도하는 과정에서 토착민과 갈등	당시 도덕불에 대한 민중들의 반항	고려에 대한 반역장수 토성구축, 군비강화 과정에서 토착민들과의 갈등

37) 권태효(1999), 전계서, p.172.

38) 권태효(1999), 전계서, p.172.

김통정에 대한 인식	부정적: 강제노역에 대한 반감 긍정적: 해방군으로 인식	긍정적: 샘물을 제공	부정적: 토착민과의 갈등
김통정이 중요한 행적	김통정씨가 대간에서 승이 활을 쏘아 삼장수의 영토분할, 용왕국 따남아기와외 혼인, 왜놈퇴치	김통정 김안이 성신굴이 됨, 김통정의 장수적 면모, 집집마다 샘을 파서 먹을 물을 마련해 줌	김통정 성치, 토착민신 삼형제가 활을 쏘고 말을 달러서 영토 분치
민중들의 의식	전쟁체휘에 의한 외래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 외래신을 당신으로 섬기는 까닭은 원신이 되어 인간들에게 복수를 당할까하는 두려움과 몽고군이 주둔함에 따른 두려움 때문	사회가 거부하는 인물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제주민의 의식체계와 폐쇄된 사회현실을 나타냄	외래신은 지배층의 관점에서, 토착신은 민중의 의식을 대변하는 측면에서, 결국 외래신의 퇴치는 제주에 피해를 입혔다는 의식 때문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도 당신화에서의 김통정은 지역민들에게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각각 다른 양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김통정이 제주 입거 후 축성과 진지구축에 노역이 동원되고, 식량 부족으로 인해 토착민과의 갈등이 드러나게 되면서 외래신과 토착신에게 정치 당하게 되었고, 결국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장수당이나 금덕리당 본풀이에서는 김통정을 샘물을 제공하는 존재로 위상을 높이고, 몽고군에게 겁탈당하는 부녀자를 구하는 등 긍정적 존재로 형상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전설의 전승양상

1) 작품의 구조

삼별초군이 강화도와 진도를 거쳐서 제주도에 들어올 때까지의 김통정의 활동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는 향파두리성에 진지를 구축하여 김통정이 삼별초의 우두머리로 출현하면서부터이다. 제주에 입거한 삼별초군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 해 하

반기에는 특별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다. 이것은 제주에 입거한 초기, 삼별초군이 본토를 위협하는 구체적인 군사행위를 전개하지 않고 정찰 활동과 오로지 축성 등 방어시설에 주력하였던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전설에서의 김통정은 앞장에서 살폈던 당신화와는 그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전설은 당신화보다 그 내용이 더 풍부하고 비극적인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구비물에 나타난 김통정 이야기는 그의 비범한 출생에서부터 축성시설, 여몽연합군과의 전투, 패함, 죽음으로 이어지는 일대기적 과정을 그린다는 점에서 전기적 성격을 띤다. 또한 실제적 인물이기에 역사적 사실과 일정한 대응관계를 지니고 있다.

인물전설의 주인공들이 민중들 편에서 민중들의 현실적 삶의 고뇌를 해결하고, 그들의 초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민중들의 숭앙을 받는 것처럼, 김통정도 제주민의 의식 속에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려고 했던 민중의 영웅으로 생각하였고, 그가 결국 패망했다 하여도 그 시기에 난세를 극복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장군으로 그들은 이야기판에서 민중의 영웅으로 부각되었던 것 같다.

이 장에서 살펴볼 전설 속의 김통정 이야기도 몽고의 침략으로 짓밟힌 불안한 사회 속에서 영웅출현을 갈망하였다. 그리고 그 영웅을 신이 한 출생과 道術, 神術을 부리는 아기장수로 탄생시켜 자신들의 현실적 고난을 구제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인물의 一代記的 전개는 “英雄의 一生”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김통정 이야기의 아기장수형 구조에 근거를 두고 아래와 같이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구조를 분석해보면 민중들이 역사적인 인물을 이야기판에 끌어들여 이야기하면서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인식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 A. 神異한 出生
- B. 卓越한 能力을 통한 活躍
- C. 抗拒를 하지 않을 수 없는 危機에 부딪침
- D.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敗北함

이 유형분석을 위한 수록문헌 대상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표4〉 전설 분석 대상자료

구분	수록문헌	전승지 및 제보자	제보일자	작품명
전설1	현용준 「제주도전설」	A. 애월면 고성리 강태언(남·64세)	1975. 8. 14	김통정 장군
		B. 제주시 용담2동 박승남	미상	"
		C. 제주상업고등학교 학생 전승규	1960. 1. 15	"
		D. 애월면 고성리 김연(남)	1965. 1. 25	"
		E. 애월면 애월리 박길순(남·80세)	1975. 7. 18	"
		F. 애월면 광령리 고인훈 부친	1975. 2. 19	"
전설2	제주도 「제주도전설지」	G. 애월읍 고성리 강정(남·61세)	미상	김통정 장군
		H. 애월읍 고성리, 김병수(남·82세)	미상	갈구미(渴玖椬)
전설3	김영돈 등 「제주설화집성」 (I)	I. 애월읍 어음리 김승추(남·76세)	1984. 7. 18	김통정(I)
		J. 한림읍 용포리 장덕기(남·76세)	1984. 9. 5	김통정(II)
		K. 애월읍 광령1리 고용해(남·45세)	1983. 7. 27	애기엄개 말도 들어라
전설4	한국구비문학대계 9-3(제주편)	L. 안덕면 덕수리 이화옥(여·80)	1981. 7. 17	김통정 장군
전설5	한국구전설화9 (제주도편)	M. 애월면 수산리 고씨(남·78세)	1964. 8	희뿌리 샘물
전설6	「고성리지」	N. 애월읍 고성리 향토지편찬위원회	1993	김통정 장군
		O. 애월읍 고성리 향토지편찬위원회	1993	안오름호수
보조	제주향파두리항몽 유적지학술조사및 기본정비계획(제 주북제주군)	애월지역을 대상으로 1차자료: 문헌자료 2차자료: 고성, 광 령, 유수암, 장진, 상귀, 하귀지역으로 선정하여 구비전승정도를 비교함.	2002	제주의 항몽관련 구비전승편 (문순덕)

가) 神異한 出生

위의 자료들에서 보면 김통정의 어머니 신분을 과부, 중국 조정승의 딸, 처녀, 부잣집의 딸, 몽고왕족으로 묘사하면서 김통정의 출생을 지렁이 또는 지네와 交婚하여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면서 神異스러운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지렁이 또는 지네로 교혼하여 태어나 삼별초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김통정의 출생은 후백제 시조 견훤의 출생담을 취하고 있으며, 아래자전설로 널리 알려져 있다. 곧 김통정이 새로운 통치자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 신성성과 당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옛 백제 시조신화를 끌어와 획득했다는 것이다.³⁹⁾ 아래자형 설화는 이류교혼담이라고도 하며, 여기서 남자의 정체는 용·구렁이·거북 등 물과 관련된 동물이라는 점에서 水神으로 신성시했던 존재이다. 이런 점에서 아래자 설화는 水父와 地母사이에서 시조가 출생한다는 신화유형임을 알 수 있다. 즉 이 설화는 水神神話의 변이형태이며, 동·식물 숭앙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자 설화를 서대석은 水父地母型 신화라고 파악하고 있다.⁴⁰⁾ 김통정이 성산면 성산리 본향 장수당본풀이에서 성산 마을의 물혈기를 파서 샘물통을 파고 인간들이 살 수 있게 하였다는 점으로 보면 샘물을 제공하는 수신직 성격이 엿보이며, 이런 결과 부정적으로만 인식했던 애월지역 당신본풀이와는 달리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

김통정의 아기장수적 면모는 김통정이 날개가 돌아있고 온 몸이 비늘 또는 갑옷을 입고 있으며 도술을 쓸 줄 안다고 하는 것이다. 제주 사람들이 아기장수를 탄생시킨 저변에는 제주가 큰 인물이 날 수 없는 땅이지만 그러한 인물이 나와서 현실을 개혁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 아

39) 권태효(1999), 전계서, p.179.

40) 서대석(1985), "백제신화연구", 「백제논총」 1집, 백제문화개발연구소, pp.40-50.

기장수의 출현은 제주 사람들의 소망이며, 왕정체제 하의 고정된 사회 관념을 거부하는 행동이기도 하다.

제주의 아기장수형 진철은, 아기장수가 진칙으로 기부되는 상우, 아기장수의 날개만이 거부되는 경우, 아기장수를 수용하는 세 유형으로 각각 변이되었다.⁴¹⁾ 이 중 셋째 유형은 부모들이 아기장수의 비밀을 숨겨버리는 경우이다. 김통정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김통정은 민중의 입장에선 결국 장수로서 패배한 인물로 나타나고, 역사서에는 난을 주도한 역적의 우두머리로 기술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주 사람들에게는 수용될 수 있었으나, 역사가 이들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中世 봉건질서를 허물 수 있는 기반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던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후에 다시 태어나 현실을 개혁하고 도탄에 빠진 민중들을 구제하겠다는 의지를 여운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다. 그의 탄생을 비늘과 날개가 달린 아이, 혹은 매로 설정된 모습으로 나타내면서 非日常的 탄생담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신이한 출생담은 앞으로 전개할 인물의 비범성과 탁월한 능력을 말해주는 이야기의 대전제가 되는 항목이기도 하다.

나) 卓越한 能力을 통한 活躍

이 단락은 김통정 설화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많은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토성 쌓기에 토착민들을 동원시켜 삼별초와의 갈등양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야기의 주인공을 범인이 지닐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소유자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역사적인 사실과 설화적인 요소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단락으로

41) 현길언(1981), 전계서, p.124.

서 민중들의 의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원종 12년 5월 丁丑(15일)에 진도가 고려와 몽고의 연합군에게 함락되자, 김통정은 잔여 세력을 이끌고 그들의 최후의 보루로 지켜오던 제주도로 들어오게 되었고, 삼별초는 진도에서의 실패를 계기로 많은 병사를 잃자, 제주에서는 우선 방비시설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내·외성을 쌓았다. 삼별초가 쌓았던 내·외성은 『新增東國輿地勝覽』濟州牧 古跡條에 古土城·古長城·缸波頭古城·涯月木城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중 구비물에 나타난 토성이란 외성인 古土城인데, 이 토성은 언덕과 하천을 따라 자연 지형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주위 15리에 달하는 성을 쌓았던 것으로 보이며, 성 위에는 항상 나무를 태운 재를 뿌려 놓았다가 적이 침공할 때 연막전술을 폈다고 한다. 즉 말 꼬리에 대비를 매달아 달리게 함으로써 자연히 재가 하늘로 날아올라 연막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토성을 축성하기 위하여 삼별초는 도민 각 호당 빗자루 한 자루와 재 한말씩을 거두었고, 또 축성과 진지구축에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였으며, 자신의 인분도 먹기 어려웠다는 고통스런 이야기가 아직도 전승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자료에서 보면, 개경 정부와 대립하는 삼별초에게 제주민은 거의 강제로 노역에 동원되어 반감이 더가중되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자신의 인분을 먹었다거나, 지렁이와 땅벌레까지 잡아먹었다는 내용은 실제로 그리하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생존의 위협을 받았음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제주도에 흉년이 들어 생존이 위협을 받았을 때의 사회상황이 김통정 시절과 겹부되어 전승되는 과정에서 굳어지버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려사』 충렬왕때에는 삼별초 난이 평정한 직후에 제주민들이 흉년으로 겪었던 참혹한 생활상을 기록한 부분들이 보인다.⁴²⁾ 충렬

왕 시기는 삼별초란을 평정한 후 4년이 지난 때였다. 이 당시에 이야기가 후대로 전승되면서 그 시기를 김통정 시절이라고 단순히 지칭한 것일 뿐 제주민들에 대한 삼별초의 수탈과 학정에서 비롯된 지독한 궁핍상을 이처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⁴³⁾

김통정이 도술을 부리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인물로 나타난 모습은 그의 행적이 영웅적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역사적 기록에서의 김통정 행적은 삼별초난을 일으킨 역적, 적당의 우두머리로서 갖은 패악을 저지르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린 인물로 기술했고 있으나, 실지 김통정의 영웅적 행위는 당시 많은 사람들의 숭앙을 받았을 것이며, 시대를 거쳐 오면서 민중들의 입에 오르내렸을 것이다. 민중들은 김통정을 추모하고 숭앙하는 마음과 흥미에서 출생담으로부터 활약상, 죽음에 이르기까지 실제와 다르게 많은潤色을 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설적 인물 김통정은 날개달린 아기장수로 신이한 인물로 탄생하였으며, 비늘이 돋고 갑옷을 두른 장수적 기질로 도술을 부리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범한 장군으로 형상화시킨 것이다. 이와 같은 실제 인물 김통정과 민중들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화해 있는 전설상 인물로서의 김통정과 비교는 이야기를 향유하고 있는 민중들의 의식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김통정 이야기 중에 나타나는 설화적 요소들은 민중들이 의도적으로 삽입한 것들이다. 그렇다면 전설적 인물로 화한 김통정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민중들이 지니지 못한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성 위에 재를 뿌리고 말꼬리에 빗자루를 매달아 먼지를 뿌엩게 일으키게 하고 침범해오는 병사들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나, 위협을 느낀 김통정이 쇠방석을 바다 위에 던져 날아갔다고 하거나,

42) 《高麗史》 권 제55 志제9 五行3. “忠烈王三年三月 耽羅大饑 民有闔門而死者”

43) 권태효(1999), 전계서, p.160.

은 몸에 비늘이 덮여 있어 어떤 칼도 화살도 몸에 꽂히지 않았으며, 항파두리성도 도술로 힘 안들여 쌓았다고 민중들은 말하고 있다. 즉, 이야기 속에서 김통정은 일반인으로서의 행할 수 없는 奇事異蹟을 자유자재로 행하는 초능력을 가진 영웅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역사적 실제 인물이 이야기 속에서는 지상적 차원을 넘어선 신통력과 도술을 지닌 초월적 능력의 소유자로 변신한다. 즉, 범인이 가질 수 없는 豫知力과 慧眼이 있으며, 현실적 時空을 초월해서 그 능력을 발휘한다.⁴⁴⁾ 여기서 현실적 차원을 넘은 신통력과 도술을 부린다는 행위는 김통정이 초월적 세계에 속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중들이 겪는 현실적 갈등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공감대가 커진 까닭이다. 김통정이 행하는 도술과 초능력은 이야기를 향유하는 민중들의 현실적 갈등과 삶의 고뇌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탁월한 능력을 지녔음에도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하면서 위기에 부딪치게 된다.

다) 抗拒를 하지 않을 수 없는 危機에 부딪침

아기장수의 기본적 구조는 출생-죽음의 구조이다. 김통정은 기존질서와의 대결을 거쳐 결국 죽음에 이른다. 김통정은 태어나서 여러 가지 신이함을 보여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장수로서의 기질을 보였으나, 지배집단과 토착민과의 부조화로 인해 결국 죽음을 당하고 만다.

‘적을 돕는 아기업개’는 당신본풀이뿐 아니라 전설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화소이다. 당신본풀이에서는 유독 고내본향^①과 고내본향^⑥에서만 ‘여인(계집아이)’로 등장하고 있고, 진실에는 보는 분헌 및 현장조사 자료에 거의 나타나고 있어 ‘아기업개’의 화소는 삼별초 항쟁의 직접 피

44) 전해경(1983), “인물전설의 구조와 사상배경에 관한 소고”,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p.91.

해를 입은 애월지역에서만 전승되는 양상인 것 같다. 당본풀이에서 일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전설에서의 아기엿개의 설정이 당본풀이에 흘러 들어가 혼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통정이 패하게 된 것은 토착민들의 배반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당신본풀이와 전설에서 등장하는 '여인', '아기엿개', '머슴'의 모티브는 전부 토착민들을 상징하며, 결국은 삼별초와 지역민들과의 갈등 대립으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삼별초가 제주도에 입거하여 약 2년 10개월 동안 항몽하는 동안에 제주도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방어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축성과 진지구축에 도민을 동원하여 부역을 시켰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제주도는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는데 가중된 부역은 제주도민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였을 것이고, 또 田作피해와 농번기에 농사를 제대로 못하는 실농현상이 일어났을 것이다. 원은 일본정벌을 위한 兵站基地로 제주도를 이용하기 위해 도민들로 하여금 군마와 가축을 사육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선박을 건조하게 하는 등 제주도민에 대한 착취도 매우 심하였으리라 짐작된다. 삼별초가 평정된 후 제주도는 원의 직속령이 되어 약 1백년 동안 직접 간접으로 그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역사상 제주민이 겪은 수난도 매우 컸을 것이다.

김통정은 날개 돋은 아이로 태어났으나, 어머니는 그 사실을 숨겨 나중에는 결국 나라에 반역하는 장수가 되었다. 여기서 반역했다는 것은 관찬사서에서 말하는 장수의 반역행위를 일컫는다. 민중들은 이들의 날개를 은닉하여 장성한 후 도술을 부릴 줄 아는 신비한 인물로 형상화했지만 역시 반사회적 반국가적인 인물로 몰락시켰다. 그렇다면 제주민들이 민중의 영웅으로 생각했던 김통정을 패배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앞 절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삼별초와 도민과의 갈등 때문이었다.

이렇게 삼별초의 제주 입거 후 여러 가지 사건과 인식으로 인해 제주민들은 김통정을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아니 하였으며, 그러한 인식의 결과 토착민을 상징하는 '아기업개'나 '머슴'을 등장시켜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은 김통정은 날개달린 장수로서 도술을 부리고 토성을 쌓아 적들을 교란시키며, 여·몽 연합군과 치열한 항쟁을 계속하였으나, '아기업개'의 반란으로 이미 삼별초의 몰락은 예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폐배함

신이(神異)한 인물들인 장수는 역시 사회에 수용되지 못한 채 거부되기 마련이다. 김통정 개인의 몰락에 그치지 않고, 그 자식들—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배속에 든 아기들까지도 태어나기 전에 죽음을 당한다. 이는 역적의 자식은 역적이 될 수밖에 없으니 아기도 낳기 전에 죽여 버려야 된다는 거부의 극렬함을 보여 주면서 장수의 비극을 첨예화시키고 있다.⁵⁾

김통정은 날개 달린 비범한 장수로 태어났으나 결국 그의 최후는 비극적으로 끝난다. 이러한 비극적 죽음은 김통정의 아내와 그의 자식의 죽음 부분에서 다시 이어짐을 볼 수 있다. 민중들은 비록 한번의 장수의 좌절이 있었으나, 그의 자식으로 하여금 또 다른 변혁을 시도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거둬된 아기장수의 설정과 좌절은 그만큼 김통정에 대한 민중의 염원이 절실했다는 것이며, 그 좌절감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 이는 역적이 될 소지가 있는 인물은 씩부티 바벌시켜 버리고, 역적의 혈족은 삼족까지 멸하는 당시의 사회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5) 원길인(1981), 전계서, p.147.

6) 권태효(1999), 전계서, p.181.

아기장수는 지배층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이지만 민중의 입장에 보면 구원자이며 해방군으로 보고 있다.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제해주고 새로운 세상을 변혁해줄 장수를 민중들은 염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김통정은 패하여 죽음을 맞이하였고,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통정의 아기장수적 면모는 결국 민중의 영웅은 패하여 좌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안타까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김통정의 최후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 열전 권17권 <김방경>조에는 김통정이 산속으로 도망해 들어간 후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그 종적을 말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배중손>조에는 김통정이 자살하였다고만 하였다. 또 《고려사절요》 제19권 <원종순효대왕>조에서는 김통정이 산중으로 도망하였는데, '윤월에 탐라에 주둔하였던 장군 송보연이 적 괴수 김통정의 시체를 얻어 보고하였다'고 하면서 김통정의 자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하지만 민중들은 김통정의 죽음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다. 단지 김통정을 죽으면서까지 백성에게 먹을 물을 제공해주는 수신적 존재로 형상화시키고 있어 장수의 재출현에 대한 예감과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통정의 죽음이 제주민의 좌절이라면 그의 모호한 죽음에 대한 처리는 제주민의 좌절에 대한 저항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영웅의 몰락 전설은 전체적 힘의 횡포에 의한 역사적 상황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영웅의 몰락은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회구하는 일반민중의 꿈의 좌절과 통하는데 그 꿈은 증거물을 제시함으로써 영웅의 출현 가능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당신본풀이와 전설은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공유하면서 민중의 의식 또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원래 전설에서 유래되던 이야기들이 당신의 내력담에 삽입되어 혼착된 것으로 보

인다. 그래서 당본풀이에는 당신의 영험성과 신성성을 드높이고자 하였으며, 전설에서는 민중의 영웅이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급박한 사회상황을 문학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형상화시키고 있다.

김통정에 관한 역사기록을 살펴보면 적장으로서 삼별초의 패잔병을 이끌고 탐라로 들어와 내성과 외성을 쌓고 갓은 패악을 저지르며 백성을 도탄에 빠트린 인물로서 여몽연합군에 대항하다 결국은 패배하여 죽었다는 내용이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역사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야래자형 출생', '아기장수적 면모', '아기업개의 출현', '도술을 부림', '샘에 관한 유래', '지명에 관한 유래' 등은 민중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되고 있어서 관(官)과의 갈등이라는 문제를 야기 시킨다. 한편, 당본풀이에서는 항몽의 중심지였던 애월본향 당본풀이에서 중국의 삼장수에 의해 김통정이 징치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고, 실제 항쟁과 관련이 없는 성산본풀이에서는 그를 샘을 제공하는 긍정적 이미지로, 광정당본풀이에선 토착당신에게 징치되는 모습 등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전설에서의 민중의식이 당본풀이에는 어떻게 의식되고 있는지 여러 층위의 의식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자료들은 삼별초라는 역사적 사건에 있어서의 관(官)과 민(民)의 대립적 위상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통정 관련 설화는 당본풀이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전승되었는데 김통정이 성을 쌓고 그의 토벌 세력과 싸움을 하는 근본적인 구조에는 별반 차이가 없으나, 구체적 묘사나 대결 세력의 실체에 대해서는 상반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과거 제주 민중의 동일한 역사적 체험에도 불구하고 화자의 편이에 따라 무가에서는 당신의 내력담으로, 구비설화에서는 흥미담으로 전승된 결과라 하겠다.⁴⁷⁾

〈표5〉 당신화와 전설의 비교

주요 모티브	당신화	전설
아래자형출생, 아기장수적 면모	거의 언급되지 않음	가장 중요한 화소로 등장 시조신화적 성격, 수신적 성격 - 통치자로서의 당위성 - 용마의 출현 - 날개가 돌아있고, 온 몸이 비늘 또는 갑옷을 두르고 도술을 부림
아기업계의 등장	애월 고내본향에서만 나타남	당신화의 화소와 같으나 아기업개 대신 머슴으로도 등장함 - 애월 지역에서만 나타남
김방경 부하장수들과 대결	- 당신화에서는 중국의 삼장수, 토착당신에게서 정치 - 이런 대결에서 김통정을 물리친다는 것이 당신의 계기가 됨	- 김방경의 부하장수들과 대결을 벌이다 죽음
생물 만들어 식수 제공	수신적 성격, - 성산본향(장수당)에서만 나타남. - 애월당신화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여용연합군이 두둔하면서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표현을 못한 것으로 보임(당신화가 전설보다 경직)	수신적 성격
김통정에 대한 인식	- 부정적: 탐라의 우마와 생산물에 욕심, 김통정입거후 고통스러웠던 사회상황때문 - 긍정적: 백성을 위해 샘물제공	- 긍정적: 물을 공급하는 수신적 존재, 패배에 대한 아타까움. 제주민들을 구원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그들의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인물로 인식. - 부정적: 노역동원, 군비조달로 인한 식량제공
역사적 사실의 허구화	외부인의 입도는 전쟁체험을 경험했던 제주민에게 역사와 사회문화적 현상을 보여줌. 김통정은 외래신에게 비극적최후를 맞이하거나, 당신으로 신격화	賊黨으로 기록되던 김통정은 제주민들을 구원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인물로 형상화함. 생물만들어 식수를 제공하는 수신적 성격으로 그림. 김통정 죽음은 역사 기록에서 김방경과 대결을 벌이다 죽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설에서는 부하장수들과 대결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역사적인 경험의 반영이 전설에서 보다 사실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임. 대결양상은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영웅신화적 성격을 띠

47) 오대혁(1997), "김통정관련 서사물에 투영된 역사인식", 『동원논집』, 제10집, 동국대학교, p.72.

IV. 김통정 설화에 나타난 민중의식

1. 당신화에서의 갈등과 해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별로 변이된 당신본풀이에는 많은 양과 복잡한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으면서 외래신격간의 대결과 토착신과의 대결양상을 치열하게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민들은 불모의 자연환경과 억압되고 폐쇄된 사회환경속에서 자신들을 구제해 줄 유일한 신앙을 무속신앙에서 찾았다. 제주민들에게 있어서 堂神의 존재는 정신적 신앙이며, 현실적 황폐함을 보상받으려는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외래신의 입도는 제주민들에게 많은 부정적 인식을 낳게 함으로써 토착민들과 많은 갈등을 초래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과의 갈등양상이 역사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외래신격간의 갈등대결이다. 이는 중국삼장수와 김통정의 대결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마와 생산물을 탐내 입도한 김통정을 징치하는 양상이다. 그 당시 특산물과 말은 고려 정부와 중국에서 탐낼 정도로 품질이 우수한 것이어서 제주민들은 이를 진상해야 하는 억압에 시달려 갖은 고통을 겪었다. 이러한 우마와 특산물을 김통정이 탐내어 제주에 입도하였으니 이미 제주도의 우마와 생산물을 손에 쥐고 있던 중국 삼장수가 김통정을 징치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통정이 이러한 것을 탐냈다는 것은 김통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진승민의 김통정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둘째는 지배층과 堂神의 대립이다. 이는 이형상목사가 미신타파의 일환으로 신당을 철폐함으로써 당시 제주민들의 삶의 전부였던 종교를 없

애려고 한 사건이었다. 즉 퇴치자인 목사(또는 판관)와 퇴치를 당한 당신(또는 뺨)과의 치열한 대립관계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는 목사와 당신과의 투쟁 후, 결국에는 당신이 승리하는 결구로 되어 있다. 결국 지배층이 표면적으로는 신당을 철폐하여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으나, 끝내 당신들은 이목사의 무덤 위에 서려 있으면서 복수를 가하게 된다. 즉 민중들은 이목사 치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설화⁴⁸⁾를 통하여 나타냄으로써 당을 철폐한 이형상 목사와 당신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다. 당을 철폐한 이목사에 대한 당신들의 이러한 복수 의도는, 바로 당신을 숭상했던 사람들의 내면적 진실이면서 신당철폐에 대한 극렬한 부정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는 몽고군과 김통정의 대결에서는 갓은 만행과 겁탈 등을 자행하는 몽고군을 김통정이 퇴치 해주었으니 당신으로 모실 만하다는 것이다. 이는 삼별초 평정 후 몽고군이 거의 1세기 동안 제주를 지배하면서 갓은 만행과 약탈, 부녀자 겁탈 등이 횡행하자 김통정이 몽고군을 격퇴한다는 내용이다.

삼별초가 평정된 元宗 14년부터 몽고의 억압과 횡포의 수모에 시달리게 되고, 목축사역의 구실 하에 초적죄인⁴⁹⁾을 풀어 놓았기 때문에 이들 죄인들의 횡포, 절도로 불안과 공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갔다. 고려와 원나라 양국에 헌상하는 과중한 歲貢과 元의 관원, 고려의 京來官 屋主王子 등 삼중으로 지배층의 토산물 징발에 의한 수탈은 물론 때로는 극심한 탐관오리의 가렴주구 등으로 인권은 극도로 유린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 헤어날 길이 없었다. 장정들은 전쟁터 또는 重勞役場으로 끌려

48) 玄容駿·金榮敦, 「韓國口碑文學大系」 9-1, pp.101-103.

49) 고려사에 의하면 惠烈王 元年 4월에 盜賊 百餘人을, 同王 3年 5월에 罪人 33인, 同年 8월에 40인을 각각 濟州에 유배시켰다.

갔으며, 부녀자들은 몽고인의 노비로 징발 당했다.⁵⁰⁾

한편, 원나라의 목마관리를 위하여 제주도에 들어왔던 목호들은 성질이 사나워 원이 멸망한 후에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 여러 차례의 난을 일으키고 목사와 관리들을 살상하는 등 횡포가 심했다. 그러나 제주민들은 이러한 고난과 패배의 역사를 여기서 굴복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김통정을 내세워 몽고를 물리치게 만들어 당신으로 모신다는 것이다. 이는 제주민의 의식구조 속에 항상 자주·자립사상과 저항의식이 도사려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넷째는 외래신과 토착신간의 갈등으로서 김통정과 토착신과의 대결 양상이다. 광정당신은 당신중에는 가장 센 신이다. 이러한 신에게 김통정이 징치당했다는 것은 김통정이 제주에 입거함에 따른 부정적 인식들이 외래신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삼별초 주둔으로 축성에 따른 노역동원, 군량미와 군비조달로 식량부족, 항몽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다름으로 인해 그 뜻을 같이 할 수 없었던 부정적 인식들이 토착신이 승리하게 만들었으며, 토착신이 승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갈등양상들을 민중들은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삼달본향당본풀이에서 드러나는데 그 당시 사회에서 수용할 수 없는 역적을 받아들임으로써 지메이테올로기와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주에 새로운 질서가 생성될 수 있는 땅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 당시 도덕률에 대한 민중들의 반항의식을 뜻하며, 사회가 거부하는 인물을 받아들임으로써 폐쇄된 사회현실과 당시 도덕률에 대한 민중들이 지한이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삼신본향당본풀이에서는 김통정을 샘물을 제공하는 뛰어난 장수로 묘사하면서 갈등

50) 변승규(1992), 전계서, p.38.

을 극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당본풀이에 삽입된 김통정 이야기는 당신의 내력담으로 풀이되면서 당신의 신성성과 영험함을 드러내 보이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은 몽고인, 고려인, 김통정은 제주민에게 있어서는 외세 세력이었을 뿐 제주민들에게는 피해자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제주민들은 갈등과 좌절을 당신본풀이와 전설에서 아기장수를 탄생시키고 문화적으로 형상화하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2. 전설에서의 좌절과 극복

제주역사는 제주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본토와는 다른 지리적 조건으로 생활양식 자체도 달랐다. 메마른 땅에 三災가 겹친 제주도의 지리적 환경의不利는 제주민들의 삶을 여유 없게 만들었으며, 더구나 內外的으로 당해야 했던 사회적·역사적 수난도 극심했으니 그것은 관리들의 擄取와 외세의 侵奪이었다. 또한 술한 貢納에 시달려 제주민들의 삶은 이중·삼중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러한 척박한 지리적 조건과 수난의 배경속에서 제주사람들은 인물이 날 수 없는 땅이었지만 그만큼 위대한 인물을 기다리며 살아왔다. 큰 인물이 나와서 현실을 개혁하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기원했다. 그 결과로 민중들은 겨드랑이에 날개 달린 아기장수를 출현시켰다. 여기에 제주민들의 소망이 이루어진 듯 했다. 그러나 폐쇄된 사회는 결국 장수를 제거해야할 대상으로 인식했고, 왕권을 도전하는 인물은 역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현실적 제약에 따른 민중들의 저항과 좌절이 나타난다.

제주민들은 아기장수를 살려둬으로써 영웅이 나와 주기를 고대하였다. 그러나 평민의 집안에 태어난 비범한 능력을 지닌 장수는 이 사회에

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한계성과 평민태생의 장수는 역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결국 제주민들은 영웅이 탄생하지 못함을 중앙정부와 몽고의 강대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것은 제주는 결코 패배할 수 없으며,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삼별초의 패배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연유된 것이라는 생각이다.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린 아이를 제거하거나 숨겨서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가 비범한 인물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적 상황이었던 것이다. 역적이 나면 삼족이 멸할 당시의 경직된 현실에서 그들은 어떻게 거부당해야만 할 인물들이었다. 그러면 그런 거부의 행위를 담당한 객체는 누구인가. 그건 모두가 나라에서 보낸 사람들이다. 즉 절대 권력에 어쩔 수 없이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토의 아기장수전설들이 관의 개입이나 부모가 아기장수를 죽이는 행위들은 기존의 사회질서가 아기장수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여기에는 개인보다는 국가가 우선한다는 왕권통치사회의 가치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통정의 어머니는 아기장수를 죽이지 않고 감추어 기른다. 장차 장수가 될 비범한 아이를 낳고도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가 장차 역적이 될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낳은 아기를 숨겨 기를 수밖에 없었다. 아이를 숨겨 길렀다는 것은 지배체제가 결코 민중들과는 맞서 싸울 수 없다는 불가항력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배경에는 평민의 아들로 태어난 비범한 인물은 사회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한계성 때문에 역적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역사적으로 계속된 민중들의 민란이 한번도 성공하지 못한데서 오는 패배를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차 민중들을 구원해줄 영웅을 기다리는 제주민들의 저항의식을 대변해준 것이며, 사회 고정체계에 대한 반항을 뜻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세상을 바꾸

기 위해 태어난 장수가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없다는 민중의 꿈과 소망이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가 육지에 비해 소외당한 곳이라는 점과 지배집단에 대한 민중의 적개심과 저항의지가 더 강했기 때문에 김통정을 아기장수로 탄생시켜 민중들을 구원해 주기를 염원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제주민들은 김통정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마는 않았다. 삼별초군이나 여·몽연합군의 입도는 제주민에게는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었다. 성의 구축에 노역이 동원되고, 삼별초 입도에 따른 전쟁에 수많은 희생자를 냈을 것이다. 입도초기에는 삼별초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협조가 삼별초 본진이 대거 입도했을 때는 지배집단의 성격과 같은 위압감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그래서 토착민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러 올 줄 알았던 영웅에게 실망과 좌절을 하게 되고 제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비범한 인물들이 몰락한다는 것은 몰락한 인물의 불운함과 사회상황, 그리고 정치적 폭력이 함께 개입됐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민중들은 아기업개를 등장시켜 김통정을 죽게 만들지만 아기업개를 적대세력으로만 볼 수가 없다. 토착민을 상징하는 아기업개는 결국은 가해자이지만 한편으로는 지배집단에 의해 피해를 당한 토착민이기도 하다. 결국 본토의 아기장수설화에서 부모가 아기를 죽이는 경우와 아기업개의 방해로 김통정이 패배하는 모티프는 아기장수의 적대세력이 부모와 아기업개가 아니라 지배집단과 폐쇄된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지배체제를 경험했던 민중들이 지배질서의 거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존재의 두려움 때문에 토착민을 내세워 김통정을 죽게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배경에는 평민의 아들로 태어난 장수는 결코 역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회상황과 이들의 항거는 항상 패배하였다는 역사현장에서의 비극적 종말이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현

실에서 지배집단에 대한 민중의 항거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수가 태어나도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패배의식이 스며있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의 민중들은 구비물을 통해서 패배한 인물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비운의 장수로 남겼다. 역사적인 기록에서 김통정은 붉은오름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전설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김통정의 영웅적인 활약에 더 관심을 두었다. 김통정이 도술을 부리며 최후까지 관군에게 대항했다는 것은 민중의 좌절을 극복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결국 김통정 이야기는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역적이나, 賊黨의 우두머리로 인식되고 있지만 민중들이 인식하는 김통정은 피지배층을 구원해주는 영웅적 존재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통 받는 민중, 도탄에 빠진 백성, 지배층으로부터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민중들을 구원하려 하였으며, 결국은 아기장수의 죽음으로 민중적 가능성이 좌절로 끝나고 말았지만 지배질서에 막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아기장수가 출현했다는 점에서는 고착된 지배질서에 맞서려는 각성된 민중의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김통정의 아기장수로의 출현과 비범한 활약상은 그 당시의 폐쇄된 사회상황과 맞서려했던 역사적 상황에 대한 극복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패배주의적 관념이 아니라 주어진 운명을 타개해 나가려는 삶의 진지함이라 여길 수 있다.

V. 결론

외세의 침략과 지방 권리들의 수탈로 끊임없이 시달려온 제주 역사에서 김통정을 비롯한 삼별초의 항몽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 준다. 이러한 사실은 구비전승물을 통해 각 집단의 요구에 의해 다양한 양상으로 수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지배층의 관점에서 서술한 官撰史書들은 김통정을 나라를 반역한 逆將으로 인식되었지만, 민중들을 바탕으로 쓰여진 구비설화에서는 김통정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사의 이면에 숨겨있는 민중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민들이 향유했던 당신본풀이와 전설에서 그 전승과 변이양상을 살펴보았으며, 실제 역사상의 인물이 민중들의 의식속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형상화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당신본풀이에서는 김통정을 중국의 삼장수와 토속당신에게 정치하는 등 부정적인 시각과 샘물을 제공하는 수신적 기능을 하는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통정이 중국의 삼장수에게 정치되는 양상은 전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화소인데 유독 광정당본풀이에서는 토속당신에게 정치당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의 저변에는 삼별초군이 제주에 입거한 후 방어시설과 군비조달을 위해 제주민들을 노역동원과 경제적 수탈을 했을 것으로 보아 제주민들과의 갈등이 빚어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산 장수당본풀이나 애월 금덕리당본풀이에서는 김통정을 샘물을 제공하는 존재로, 또 몽고군에게 겁탈당하는 부녀자들을 구하는 등 긍정적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다. 결국 당신본풀이에는 세신의 좌정담을 김통정과의 싸움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허구화하면서 당신의 위엄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전설에서는 아래자형 출생-활약-죽음을 통한 전기적 성격을 통하여

민중영웅으로서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 아래자형 출생은 백제 계통의 건국시조가 되는 신화적 성격을 계승한 존재이고, 민중들은 몽고의 침략으로 짓밟힌 불안한 사회 속에서 영웅출현을 갈망하였으며, 그 영웅을 신이한 출생과 道術을 부리는 아기장수로 형상화하였다. 또한 죽어가면서 샘물을 제공하는 수신적 존재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의 죽음과 패배에는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다. 이는 당신화와는 달리 반체제적이고 변혁을 바라는 민중의 심리가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당신본풀이나 전설에서 김통정의 부정적인 면모나 긍정적인 인식들은 그 당시 민중들의 솔직한 표현이다.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김통정을 나라를 반역한 역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민중들은 피지배층을 구원해주는 영웅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아기장수의 죽음으로 민중적 가능성이 좌절로 끝나고 말았지만, 아기장수의 출현은 지배질서에 막대한 위협을 주었다는 점에서 고착된 지배집단에 맞서려는 각성된 민중의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김통정, 당본풀이, 신의 좌정담, 전설, 민중영웅, 아기장수

참고문헌

<기초자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元史』

『新元史』

진성기(1991),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苑.

현용준(1976), 『제주도전설』, 서문당.

제주도(1985), 『제주도전설지』, 제주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3), 『한국구비문학대계』(III)9-3(제주편).

김영돈·현용준·현길언(1985), 『제주설화집성』 I,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임석재(1992), 『회뿌리샘물』, 『한국구전설화』 9(제주도편).

애월읍 고성리향토지편찬위원회(1983), 『고성리지』, 북제주군.

고창석(외)(2002), 『제주항파두리항몽유적지학술조사및기본정비계획』.

<연구논문>

현용준(1964), 「당신화의 구성과 배경」, 『재대학보』 제6호, 제주대학교.

_____(1963), 「무속신화 본풀이의 형성」, 『국어국문학』 26집, 국어국문학회.

_____(1963), 「본풀이의 형성과 내용」,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학회.

현용준·현승환(1982), 「제주도 뱀신화와 신앙연구」, 『탐라문화』 15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현길언·김영화(1980), 「제주설화를 통한 제주도 정신고구」, 『논문집』 제12집, 제주대학교.

현승환(1982), 「제주도 풍수설화의 이해」, 『탐라문화』,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_____(1992), 「내 복에 산다」系 說話 研究,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대학원.

현길언(1983),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인식」, 『탐라문화』,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고창석(1984), 「여·원파 탐라와의 관계」, 『논문집』 제17집, 제주대학교.

- 윤용혁(1994), 「삼별초진도정권의성립과 그 전개」, 『한국사연구』, 아세아문화사.
- _____(1994), 「고려삼별초의 제주항전」, 『제주도연구』, 제주도연구회.
- 김윤곤(2004), 「삼별초정부의 대몽항전과 국내외정세변화」, 『한국중세사연구』, 한국중세사학회.
- 김윤곤(1981), 「삼별초의 대몽항전과 지방군현민」, 『동양문화』 20-21, 합輯, 영남대학교
- 이경희(1996), 「삼별초고」, 『연우연구론집』, 이화여자대학교농우회.
- 김상기(1938), 「삼별초와 그의 난에 취하야」, 『진단학보』, 진단학회.
- 조동일(1970), 「민담구조의 미학적 사회학적 의미에 관한 일고찰」, 『한국민속학』 제3권, 한국민속학회.
- 권태효(1999), 「제주도 김통정이야기의 당신화 및 전설로의 변용양상」, 『구비문학연구』 제8집, 구비문학회.
- 권태효(1998), 「호국여산신설화의 성격인식 양상 연구」, 『한국민속학』 30, 민속학회.
- 오대혁(1997), 「김통정관련 서사물에 투영된 역사인식」, 『동원논집』 제10집, 동국대학교
- 서대석(1985), 「백제신화연구」, 『백제논총』 제1집, 백제문화개발연구소.
- 이혜화(1983), 「아기장수전설의 신고찰」, 『한국민속학』 16집, 민속학회.
- 유용대(1981), 「설화와 역사인식」,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 나종우(1986), 「고려무인 정권의 몰락과 삼별초의 천도항몽」, 『원광사학』 제4집, 원광대학교 사학회.
- 장주근(1986), 「제주도 당신신화의 구조와 의미」, 『제주도 연구』 제3집, 제주도연구회.
- _____(1994), 「제주도 무속과 당신앙」, 『제주도연구』 제11집, 제주도연구회.
- 진성기(1985), 「제주도 무속과 당신앙」, 『한국문화인류학』 제17집, 한국문화인류학회.
- _____(1970), 「제주도 신당과 당신」, 『한국민속학』 제2집, 민속학회.
- 이정신(1991), 「고려 무신정권기 농민, 천민 항쟁 연구」, 『민속문화연구소』, 고려대학교
- 전혜경(1983), 「인문전설의 구조와 사상배경에 관한 소고」,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표인주(1963), 「민속현상에 나타난 말(馬)의 상징성(Ⅱ)」, 『호남문화연구』, 전남대학교.
- 임철호(1996), 「아기장수설화의 전승과 변이」, 『구비문학연구』 제3집, 한국구비문학회.
- _____(1987) 「구비설화에 나타난 민족의식과 민중의식」, 『논문집』 제16집, 전주대

학교.

조동일(1971), 「영웅의 일생, 그 문학적 전개」, 『동아문화』 10집, 동아문화연구소, 서울대학교.

<단행본>

- 현용준(1985),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조동일(1982),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_____(1985), 「한국설화와 민중의식」, 정음사.
현용준(1985),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김봉옥(1990), 『제주통사』, 제주문화.
_____(2000), 증보 『제주통사』, 세림.
김태준·김승호 엮음(1994), 『우리 역사인물전승』 1, 집문당.
閔賢九(1991), 「蒙古軍·金方慶·三別草」, 『한국사시민강좌』 제8집, 일조각.
임재해(1982), 「전설과 역사」, 『한국문학 연구입문』, 지식산업사.
북제주군(1987), 『북제주군지』, 경신.
오대혁(1997), 「김유신설화의 전승양상과 그 의미」, 『우리 역사인물전승』 2, 집문당.
장주근(1995), 『한국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집문당.
진성기(2005), 『무속학』, 제주민속연구소.
최내옥(1994), 『구비문화론』, 학사고시방송교육본부.
_____(1984),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일조각.
현길언(1981), 『제주도 장수설화』, 흥성사.
_____(1985),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임재해(1991), 「설화작품의 현장론적 분석」, 지식산업사.
변승규(1992), 『제주도略史』, 제주문화.
이영권(2005), 『새로쓰는 제주사』.
김선경(2003), 『한국문화와 제주』, 국립대학박물관, 서경.
제주도(1982), 『제주도제주도지(상권)』.
조동일(1985), 「한국설화와 민중의식」, 정음사.
최운식(1991), 『한국설화연구』, 집문당.
장덕순(1981), 『한국 설화문학연구』, 서울대 출판부.

Abstract

Study on Narrations of Kim Tong-Jung

Lee, Nam-ok*

This study seeks to determine Jeju Islanders' consciousness of Kim Tong-Jung. The main focus was placed on historical statements related to Kim Tong-Jung and oral tradition materials. References to Koryo government resistance against the Mongol invasion as well as the messengers' consciousness in the stories about Kim Tong-Jung orally handed down through the generations are included.

Historical books written from the view point of the ruling class regarded Kim Tong-Jung as a traitor while oral narratives didn't always depict him negatively. Therefore this study took an in-depth look at oral transmission and changes in myths village god and legends enjoyed by Jeju people to determine popular sentiment regarding Kim Tong Jung that is hidden behind history. How a real person in history was popularly conceived is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From an analysis of Dangbonpuri related to Kim Tong-Jung at shamanistic ceremonies in Jejudo, Kim Tong-Jung is depicted negatively. According to the story, indigenous gods and gods from the mainland took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Kim Tong-Jung. However shamans traditionally provided spring water to village residents belonging to a certain jurisdiction. This meant that the shaman was playing the role of a water god, thereby implying that people handing down the stories orally

* Master's Course, Department of Korean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aw Kim Tong-Jung positively. The negative point of view against Kim Tong-Jung is revealed in brutalities the Sambyulcho militia committed after arriving in Jeju. Kim Tong Jung forced the residents to build military facilities and stole from residents for funds to raise the Sambyulcho militia. These facts are not contained in historical records but are explicitly disclosed in the oral tradition narratives. Considering these contradictions in stories about Kim Tong-Jung, it seems that Jeju people weren't entirely comfortable with him.

Nevertheless, Kim Tong-Jung has been revered as a spiritual entity providing spring water in shamanistic epics used in Jangsu ceremonies of Seongsan-eub and in Keumdeokri rites of Aeweol-eub. In these stories he is recognized as a hero for rescuing women and girls from rape by Mongolian soldiers. As a result, the epics sung at shamanistic ceremonies could be interpreted as historical fiction heightening the village god's position by conveying the local god's heroic feats against Kim Tong-Jung.

Legends depicted the life story of a national hero through characteristics such as miraculous birth, supernatural exploits and a tragic death. People earnestly wished for a hero that could bring order to a society destroyed by the Mongolian invasion, so they wrote the hero as a baby-commander of divine birth using Taoist magic in legends. In addition, he also appeared as an entity such as a water god because he gave spring water at the moment of dying; His death and defeat strongly reflect the antigovernment and revolutionary psychological state of the Jeju people at that time.

As mentioned above, historical records invariably depict Kim Tong-Jung as a traitor rising in revolt against the government, whereas the populace more or less recognized him as a hero saving those under oppression. In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the appearance of a baby-commander was the awakening of popular consciousness in that it threatened the ruling order despite the frustration of these revolutionary aspirations upon the

death of King Tong-Jung, the baby-commander.

Key Words

Kim Tong-Jung, Dangbonpuri, god's position, legend, national hero,
baby-commander

교신 : 이남옥 690-756 제주도 제주대학로 66번지 제주대학교 학생복지과
(E-mail : lee5525@cheju.ac.kr 전화 : 064-754-2051)

최초 투고일 2006. 6. 14

최종 접수일 2006. 7. 22